

“다리 생겼다고 여객선 안 타나요”

육지를 오가는 섬주민들의 배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제도가 전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으나 연륙선 신안지역 일부 주민들은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목포 해양경찰청과 신안 주민들에 따르면 ‘도서개발촉진법’ 2조 2항 ‘연륙이 된 지구는 제외한다’는 조항에 따라 신안 지도읍 내양리·봉리·갑정리·광정리·자동리·태천리 등 8개리 4천800여명의 주민들이 여객선 운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안군 연륙지역 주민들 배상 할인 못받아 불만 도서개발촉진법 조항 따라...郡 1년 넘도록 방관

주민 이모씨는 “연륙이 됐으나 섬 지역이 생활권으로 여객선 이용이 잦다”며 “연륙했다는 이유로 할인혜택을 주지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은 “신안군이 이같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군이 적극 나

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지난 해부터 연륙지역 주민들의 할인혜택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전남도에 적극 건의해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도서

개발촉진법은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육지 나들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전국적으로 연륙이 된 지역은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은 운임비 5천원을 초과하는 요금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목포~가거도(4만3천200원), 목포~만재(3만9천원), 비금~도초~가거도(2만9천950원) 등의 구간도 섬 주민은 5천원만 내면 된다. 5천원 미만인 항로는 20%를 지원한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무안낙지 법적 보호 받는다 무안군 200ha 보호수면 지정 신청

‘무안낙지’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안군은 무안 낙지를 수산자원 회복 시범 사업 어종으로 선정, 주요 낙지 산란해역을 중심으로 보호수면 지정을 전남도에 신청했다.

신청 해역은 조금나무 남측 30ha와 밤바위 북서측 30ha, 탄도 북측 100ha, 홀통 남서측 40ha 등 4개 지점 200ha다.

특히 낙지수산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근 김·

굴 양식장 어민들과의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수심이 깊은 곳을 보호수면 후보지로 신청했다.

전남도는 무안군의 보호수면 지정 신청서를 검토하고 현지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해당 수역을 보호수면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곳이 보호수면으로 지정될 경우 낙지의 주 산란기(5~7월) 등 연중 다른 어업활동을 제한해 낙지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무안군은 지난 2005년 11월 ‘무안갯벌낙지’의 공동브랜드 마크·로그·캐릭터 등을 개발하는 등 무안갯벌낙지 명칭 유지에 앞장서고 있다.

또 갯벌낙지 상표를 색인한 전용 포장재 사용 및 실명제 스티커 보급사업을 펼쳐왔으며 지난해에는 무안읍 터미널 인근에 ‘갯벌 낙지 거리’를 조성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무안 송계마을 최우수 어촌체험마을 해수부 선정...대상 상금 1억원도 받아

무안 송계마을이 지난해 최우수 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지난해 어촌체험마을 경진대회에 참가한 10개 어촌체험마을 중 현지 심사평가를 거쳐 최우수 마을로 선정된 무안 송계마을에 대상과 상금 1억원을 수여했다.

송계마을은 낚시, 낙지잡이, 조개잡이, 해수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체험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전체

가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동체 의식이 높아 최우수마을로 선정됐다.

지난해 송계마을에는 5천200여명의 체험객들이 방문, 9천7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해수부는 아울러 ‘경남 남해 문항마을’과 ‘전북 고창 하전마을’에 최우수상과 상금 6천만원을 수여했다. 해수부는 경진대회에 참가한 10개 마을의 우수 혁신사례를 다른 체험마을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10일 신안군 얍해대 대천리 양파밭에서 농민들이 김매기를 하고 있다. 주로 6~7월에 수확하는 얍해 양파는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발한·이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새벽길 가로등, 사람 잠졌네

목포시 날새 상관없이 소등...통행 불편·사고 위험

목포시내 가로등이 날새와 무관하게 일정 시간에 켜지고 소등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목포시내 가로등 전체와 보안등 일부는 자동원격조정에 의해 오후 6시40분에 점등돼 아침 6시35분에 소등된다.

때문에 날새가 흐렸던 지난 5일 아침에도 가로등이 일정한 시간에 소등

돼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캄캄한 거리를 걸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5일 아침 일찍 출근한 간호사 이모씨는 “출근을 위해 버스승강장으로 가는 도중 가로등 모두가 갑작스럽게 꺼져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다.

새벽에 우유를 배달하는 장모씨는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날새가 흐러 어두운 경우에도 갑자기 가로등이 꺼

져 당황한 적이 자주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반면 산정동과 대성동, 영해동의 일부 수동식 보안등은 5일 오전 8시까지 소등되지 않고 켜져 있어 대조를 이루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일몰·일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원격조정으로 점소등되고 있다”며 “점멸제 전문업체 등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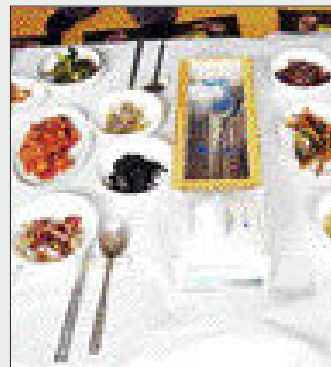
‘관광 신안’ 깨끗한 음식점부터

郡, 188곳 수저통·쓰레기통 등 지원

신안군이 민선4기 역점시책인 ‘100년을 바라보는 관광 신안’의 일환으로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가꾸기에 나섰다.

군은 지난해 관내 35개 모범·일반 음식점에 위생 수저통과 수저받침대, 음식물 쓰레기통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1천400만원을 들여 188개 전 업소에 지원하기로 했다.<사진>

또 신안에서 생산되는 시금치, 대파, 함초 등 친환경 농·수산물을 사용해 다양한 메뉴를 개발, 지역별로 전문음식점을 육성하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등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목포시내 가로수 외래종 뽑아내고 향토수종 심기로

목포시내 가로수가 향토수종으로 ‘확’ 바뀐다.

목포시는 시내 가로수 가운데 외래수종인 버즘나무(플라타너스)와 메타세쿼이아를 없애고 이 자리에 가시나무, 이팝나무 등 향토수종을 심기로 했다.

시는 총사업비 6억 6천여만 원을 들여 산정로, 영산강 하구로 등 가로수 수종 갱신 사업과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경관수 식재 등 3개 사업을 5월 말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그 동안 버즘나무와 메타세쿼이아는 가시가 너무 무성해 가로수로 부적합하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봄맞이 쓰레기 수거 목포시는 지난 8·9일 이틀에 걸쳐 공무원과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항과 내항, 삼학도 등 240개소에서 생활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였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光 州 日 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수 653-8444 (686-8584)	목포 276-9200	나주시 332-5544
광양 792-8111	무안 452-8535	나주군 332-7764
보성 853-9700	해남 534-5151	화순 374-4423
순천 746-8111	완도 554-6677	장성 392-7000
고흥 833-9900	영광 351-0055	장흥 383-8111
북동 842-2121	신안 243-3758	영암 473-2340
구례 783-8111	진도 543-0100	영광 383-8222
곡성 362-8111	강진 433-8355	함평 944-0444
	함평 324-8111	고창 564-1919
		순창 653-6155

듣성듣성한 머리가 고민이세요?

센스모에 오시면 풍성해집니다!

◆ 센스모 순천지점 Open 기념환급 행사

1. 교직원(대학생) 20% 할인
2. 경찰관무원 20% 할인
3. 장남자녀 참석 30% 할인

대표이사장 김민준

신안점 Tel. 061-745-3545 / 061-432-3545

목포점 Tel. 061-745-0522

어머님과 함께하는 SASA SENIOR

가정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노인복지센터 (신안) / 2. 노인복지센터 (목포) / 3. 노인복지센터 (무안) / 4. 노인복지센터 (보성) / 5. 노인복지센터 (순천) / 6. 노인복지센터 (고흥) / 7. 노인복지센터 (북동) / 8. 노인복지센터 (구례) / 9. 노인복지센터 (곡성)

문의: 061-745-3545